

교양과목 절대평가, ‘일단 시행’과 ‘단계적 준비’ 이견

〈서울〉

〈국제〉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교양과목 전면 절대평가 시행과 관련한 양 캠퍼스(양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캠 모두 교양교육의 취지와 현재 성적 평가 방식이 맞지 않아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일단 시행하자’는 의견이고 국제캠퍼스(국제캠)는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캠퍼스별 논의 속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캠에서 절대평가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이재백(관광학 2020) 총학생회장이 이를 핵심 공약으로 들고나오면서다. 5월에는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9월에는 전체 학생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절대평가 관련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캠 후마니타스칼리지위원회(후마위원회) 또한 작년부터 교육과정개편과 함께 절대평가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식 TF를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총학생회와의 연계가 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캠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교수진의 공감대가 더해져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반면 국제캠은 그동안 과목 관련 개편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으며 평가 방식에 관해서는 논의를 이끌 주체가 없었다. 후마위원회는 2학기에 처음 신설됐으며 불안정한 총학생회 상황 등 여러 이유가 겹쳐 논의가 진전될 수 없었다. 국제캠은 지난 10월 중순, 교육과정위원회에



서울캠은 절대평가를 내년부터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사진은 지난 9월에 있었던 관련 공청회 장면 (사진=김윤희 기자)

서 처음으로 평가 방식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양캠 합동 논의 또한 지난 달 29일 처음 개최됐다.

국제캠 후마 이준태 학장은 “교육과정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고 있던 도중 10월에 서울캠 전체 교수 회의에서 이미 절대평가 논의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국제캠에서 지난해 3월 논의했던 ‘역량 중심 평가’ 내용을 설명하며 “절대평가 취지와 비슷한 평가 방식을 국제캠에서도 논의한 바 있고 이는 2025년까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비슷한

평가 방식을 논의했기에 절대평가 시행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가장 공정하고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데, 서울캠 코로나 때 해봤더니 문제없었다는 근거는 대단히 위험하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캠 후마위원회 공지연(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 2020) 위원장은 “국제캠에서는 절대평가 논의보다 교육과정개편 과목 위주로 논의를 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달 29일에 열린 합동회의에서 제도가 급하게 바뀌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발생할 수 있

는 문제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서울캠은 후마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 코로나 시기 시행을 근거로 절대평가를 내년부터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절대평가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회장은 “코로나 5학기 동안 절대평가를 실시했을 때 우려가 됐던 것은 학점 인플레이션 하나였는데, 실제로 우려했던 것보다 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5학기 동안 쌓인 데이터를 통해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서울캠 후마 김진해 부학장은 “시

작을 해야 문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상되는 문제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교수에게 성적을 객관적으로 부여하고 신뢰도 있는 평가를 요구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캠 후마위원회 김성현(정보 디스플레이학 2021) 위원장은 “국제캠이 우려하는 절대평가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성적 배분과 같은 문제는 지금 상대평가 현황에서도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험 난이도가 쉬웠거나 학생의 성취도가 좋아서 수업에 A 비율이 높았다면 그건 그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합동회의에서 발언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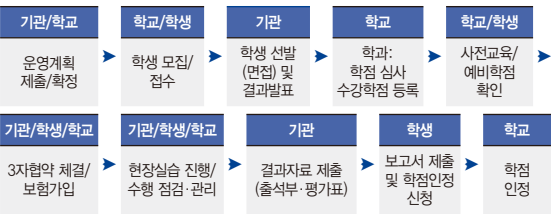
한편, 지난달 29일 개최된 ‘2024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과정개편 관련 논의(성적 평가 방식 등)’ 합동회의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최종적으로 양캠 전체 교수 회의를 하자는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캠 후마 이 학장은 “오는 13일, 국제캠 전체 교수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여기서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찬성의견이 더 많다면 그렇게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캠 후마 정 학장은 “국제캠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며 “보류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양 캠 TF를 신설하거나 교수 전체 합동회의 개최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024-1학기 장기현장실습 시행 안내

1. 진행 절차



2. 실습 기간 : 2024.03.01.(금) ~ 2024.06.21.(금)

3. 학생 참여 기준

- 가. 현장실습 진행 학기 기준 **3학년 이상 재학생(해당학기 등록 필수)**
나. 졸업유예자 참여 불가, 장기현장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이수자 참여 불가
다. 단과대학별 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무용학부는 장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라.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가능
마.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차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 가능
바. 휴학생은 복학 신청 후 2차 학생 신청 기간부터 참여 가능

4. 학교 지원 사항

- 가. 현장실습 참여학생 상해보험 가입 및 사전교육 진행
나. 신규기관 현장점검 및 학생 대상 현장실습 운영 중간 점검
다. 학점 인정 : 최소 1개월(20일) 이상 실습 시 실습일수 기준 3학점 단위로 학점 부여

실습일수	학점	실습일수	학점
20일 이상~40일 미만	3	40일 이상~56일 미만	6
56일 이상~72일 미만	9	72일 이상	12

- 서류심사시 현장실습 진행전공 소속 학과장(융합전공 지도교수)이 전공 연관성을 검토하여 전공선택 및 자유선택으로 예비 학점을 결정
- 서류심사시 예비인정(수강)된 학점 범위 내에서 실습 종료 후 학점인정
- 단기현장실습은 최대 9학점, 장기현장실습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통산 21학점까지 인정)
- 성적은 P(Pass)/N(Non-Pass)으로 처리

5. 실습기관 지원사항

- 가.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참여학생 산재보험 가입 및 필요시설·물품 제공
다. 직무 관련 교육시간(10~25% 이하)을 제외하고 정부고시 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6. 신청 방 및 선발 일정

구분	기관 참여 신청	학생 참여 신청	기관별 학생 선발	학과별 학생 심사
1차	2023.12.04.(월)~ 2023.12.19.(화)	2023.12.22.(금)~ 2023.12.29.(금)	2024.01.03.(수)~ 2024.01.09.(화)	2024.02.20.(화)~ 2024.02.21.(수)
2차	2023.12.26.(화)~ 2024.01.15.(월)	2024.01.19.(금)~ 2024.01.25.(목)	2024.01.29.(월)~ 2024.02.06.(화)	

7. 신청방법 :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intern.khu.ac.kr>)에서 실습기관 조회 후 신청

- 가. 전공 유관 현장실습 원칙에 따라 본인의 본전공/다전공 모집 중인 기관만 조회 가능
나. 각 차수별 학생 신청 기간에 기관 리스트 확인 가능
다. 한 차수당 하나의 기관에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라. 기관별 운영계획 및 모집요강을 면밀히 확인 후 지원

8. 문의처

E-mail, intern@khu.ac.kr
Tel. 서울C 02-961-2352, 국제C 031-201-3925
※ 2024-1학기 시행 관련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지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



경희대학교 LINC+사업단
KYUNG HEE UNIV.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